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우리의 대스승이자 어버이이신 세존께서는 8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자로써 직접 발우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

오늘날 일불제자라 일컫는 우리는 어떠한가? 밥 해 주고 빨래 해 주는 공양주를 두고, 큰 집에서 고급 승용차에 실크 가사, 장삼에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

부처님 정법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없고, 비불교적인 행위만 불법을 가장해서 판을 치고 있다. 출가자가 스스로 밥도 못해 먹으면서 무엇을 지도 원리로 삼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재미있게 잘 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말 잘하는 이는 늘어나고, 말잔치는 결국 도를 넘고 있다. 몇 달 전 동안거가 끝나고 신도 몇 분과 같이 학부의 선배이자 불교TV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는 산중 노스님을 찾아뵙고 왔다. 2시간여 얘기하면서 당부의 말씀은 "내가 평생 법문을 하러 다녔지만, 이제야 깨닫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실천 수행하고 난 뒤에 경험, 체험, 증험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도 많이 나온다.

천수경 중에 바른 가르침을 토대로 대비심을 일으켜 바르게 수행하면 우리의 몸은 광명이 되고(受持身是光明幢), 우리의 마음은 신통장을(受持心是神通藏) 증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처님께서 그 경지에 갔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 신통력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러한 것을 증득한 수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입은 굳게 다물라고 했는데 말만이 난무하고 있다.

선가귀감에 〈學語之輩 說時似悟 對境還迷 所謂言行 相違者也〉라 했다.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을 할 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경계에 맞닥뜨리면 미혹함에 돌아가나니 이른바 말과 행실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니라.〉고 서산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음은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016년 하안거를 나고 있을 때 아는 스님이 부탁을 하는 것이다. 신병(조현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스님이 있는데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사실은 2014년에 부탁을 하길래 데려오라 했는데 오지 않아 잊고 있었는데 데려 오겠다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스님은 속세 나이 40대 중반으로 대형사찰에 상주하고 있었다. 이미 나한테 왔을 때는 증상이 심해 말을 못함은 물론 계속 자기 손으로 목을 쥐고는 고개를 들고 물고기처럼 1초 간격으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온 스님이 통역 아닌 통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녁공양은 해야 하기에 신도님께 죽을 부탁하니 신도님이 죽 집에 예약을 해 스님 넷과 신도 한명 등 5명이 가서 그 스님을 내 맞은편 자리에 앉게 하고는 고개를 바로 해서 내 눈을 쳐다보도록 했는데 자꾸 피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이 야윌 대로 야위어 수척했고 죽이 들어오자 공양 게송 후 수저를 들라고 하니 미동도 하지 않는 것 이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무엇이 떳떳치 못해 날 못 보느냐?"고 고함을 쳤다. 계속해 소리를 높이니 마지못해 눈을 마주치게 되자 숟가락을 들으라고 또 큰 소리를 치며 다시 권하니 주저했다.

"저 스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무도 수저들지 말라."고 하니 그 스님은 할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 먹는데 얼굴이 울상이 되어 마지못해 수저를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다들 그 스님의 표정을 보면서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그 스님이 한번 떠 먹고, 다시 한번 떠 먹고 하더니 이내 먹기 시작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신도님이 가서 죽 반그릇을 더 덜어주니 순식간에 그릇을 다 비었다. 그러자 본인도 놀라고 같이 데리고 온 스님도 놀라서 그 스님을 쳐다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날 아침 공양 때도 드시라고 신도님이 죽을 사주었는데, 다음날 새벽기도(안거중) 때 신도님들 보는데서 기도해 주자, 그날 아침은 죽이 아닌 밥 한 그릇을 잘 먹었고, 금붕어처럼 입을 벌리는 일도 없었다. 혹시 재현될지 모르니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내가 눈을 봐야 하니까 왔다 가라고 당부하며 내 보냈다. (ㅇㅇ스님)

◆ 해가 바뀌면 기독교인들이 신방을 가듯이 소승도 년 초가 되면 가정 법회 겸해서 일부 가정을 방문하는데 2016년 1월 초에 신도중에 토목사업을 하는 보살이 있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기도가 끝나고 "보살님! 올해 공사 예약 받아 놓은 것 중에 산이 있는 곳이 있느냐?" 고 물으니 예약된 것 중에 앞으로 3번째 공사해야 될게 산이 있다고 했다. 그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주로 관급공사와 관련된 것이라 안할 수가 없단다.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모월 모일에 사고가 나니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 날 새벽에 꿈을 꾸게 될 것이니 그 때 꼭 꿈 얘기를 하라고 했으며, 같이 간 스님이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 놓으라고 알려주었다. 시간이 서너달 흘러 울면서 전화가 왔다.

"스님! 나 좀 안아프게 살려주세요."하며 전화가 왔길래 어디냐고 물으니 ㅇㅇ병원이라 해서 전화를 끊고 단숨에 달려가서 보니 오른쪽 팔을 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내 손에 끼고 있던 단주를 손목에 채워주고는 그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자, 순식간에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일 새벽 기도후 꿈을 꾸었냐고 물으니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진두지휘 하면서도 입으로는 진언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공사장 포크레인이 휙 돌면서 앞바가지가 팔을 치면서 옹벽과 바가지 사이에 팔이 끼게 되었다.

아침나절에 미리 얘기를 해주었다면 그날 하루를 쉬게 했을 것이다. 이 보살은 기독교 전도사였으나 이 스님과 인연 맺은 후론 1년에 200일 안거와 평상시 새벽기도를 하루로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거제 010-8510-5187)

◆ 대구에 있는 신도님이 전화가 왔다. 월요일 새벽기도 후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꿈 얘기를 들어보고는 "보살님! 이번 꿈은 가족이 아니고, 보살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꽤 규모가 있는 중기 대여 회사인데, 보살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보살님! 잘 들으세요. 메모도 하시고, 모월 모일에 그날 대형사고가 나니 장비도 문제지만 사람이 죽게 되니 보살님은 그날 하루종일 ㅇㅇ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장님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다. 며칠후 전화가 왔다. 차와 장비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개천으로 차와 장비가 전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다친데가 없고, 추후 장비 수리비만 8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터지자 그 때 보살이 사장님 보고 왜 그날 하루만 관세음보살 하라고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스님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요법회에 중기 회사 대표가 직접 사과 3박스와 돈 20만원을 가져왔고 초파일 등도 달아달라고 했다.참고로 이 보살님은 멀리 있는 관계로 안거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대신 매일 새벽 (1년 200일) 강의한 것을 녹음을 떠달라고 부탁하여 1달에 3번 이상은 오는데 올 때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열심히 질문하고 있다. 아울러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에 신랑도 감응이 되어 몇 년째부터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기도문은 다르다.
(대구 010-4807-6932)

◆ 소승이 서울에 있을 적부터 인연 되었던 보살이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2016년) "스님!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가 산모 뱃속에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도님들께 물어보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 일도 있나? 하며 다들 놀라워했다. (참고로 전화한 보살님은 한평생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신 분이다.) 바빠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ㅇㅇ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었는데, 평상시 하던 기도문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기도문을 가지고 일주만 딸네집을 왕래하면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다. 주의사항도 함께.

▫ 주의사항

1) 기도기간중 점, 사주, 철학 등을 보러 다니는 삿된 이를 멀리하고 근처에도 가지 말 것.

2) 삼재(기도, 풀이) 부적 등을 가까이 하는 이도 멀리할 것.

3) 인간 방생이 아닌 물고기, 조류 방생 하는 이도 멀리할 것.

4) 인등, 입시기도, 재수대통 기도 등을 하는 사찰에 가는 이를 멀리할 것.

5) 산신, 용왕, 해, 달, 별, 바위 등을 좇아 다니며, 기복으로 비는 이 등 등.....을 멀리할 것.

그리고 1주일 후 전화가 왔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보살님도 역시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게 되었는데, 신랑이 병고로 죽어 49재를 지낸지 얼마되지 않아 밤만 되면 신랑이 전라의 몸으로 꿈에 나타나 이 보살을 주무르고 가면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때 아는 스님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오게 되었고, 그 절에서 주었던 부적, 달마도 등 등...을 가져오게 해서 다 태워버리고, 천도재를 지내주자 그때부터는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때부터 기복이 아닌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유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본 도량에서는 달마도 대신 달마어록을 나누어 주고 공부하고 있다.) (서울)

◆ 멀리 있는 관계로 자주 못 오고, 1달에 1번 정도 오는 보살인데, 상담을 원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주 아랫배에 통증이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자궁에 11.5센치 되는 혹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급히 수술을 하자고 했으나 사실은 9센치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말리는 분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지 왜 왔냐고 하니 말이 없었다. (참고로 보살은 대형사찰의 지역 회장까지 하던 보살이었다.)"그래 알았으니 온 김에 기도나 받고 가라."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때 동참했던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해 주었다. (이 일은 금년 2017년 동안거 때 있었던 일이다.) 기도받자 마자 배에 통증은 사라지고 불과 얼마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7센치로 줄어 있더라는 것이다.

믿지 못해 내려오게 하여 여기 대형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 줄어 있는게 사실이었다. 소승이 있는 사찰에서는 신병이던, 육신의 병이던 간에 기도는 신도님들과 같이 빙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해 주고 있다. 조현병(신병) 같은 경우는 구경만 하게 할 때도 있다. (안양 010-3143-5302)

◆ 어느 모임에서 아는 스님이 강원 도반스님 절에 행사가 있어 간다고 했다. 그 스님께 그 모임에 가지 말라고 하니 안된다고 했다. "왜 무슨 일이 있느냐?" 고 되묻길래 "스님! 내 말 잘 들어요. 그 날 교통사고가 나니 가급적이면 안 갔으면 합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도반스님 절에 가서 나오다가 차바퀴가 빠져 큰 차에 실려 왔다는 것이다. 그 인연으로 가끔 일러주고 있다. (서울 010-5518-6606)

◆ 어느 모녀가 찾아왔다. 작은 아들이 40세 초반 병고로 죽자, 모녀가 다니는 큰 절에서 49재를 지냈는데 밤마다 발가벗은 몸으로 큰 아들 꿈에 나타나서 혼자는 못가겠다며 형이랑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49재를 지낸 그 다음날부터 이 꿈을 꾸는 큰 아들이 미칠 지경이란다. 그래서 그 절에서 사주,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를 하며 부적을 주느냐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바로 부적을 내어놓고 집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을 몽땅 가지고 오라고 하며, 아울러 꿈 해몽 책 등도 가지고 와야 천도재를 지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천도재를 지내는 날 망자의 이모도 왔는데, 상단불공을 한참 하다가 목탁을 내려놓고는 뒤로 돌아 앉아 보살님(이모)을 향해 부적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없다는 것이다. 법당 한 켠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해서 안에 있는 지갑을 열라고 하고서는 부적을 내어놓게 했다. 그때 좋은 표정은 아니었다. 그렇게 재를 마치고 나와 학장스님과 자매가 마주보고 공양을 하는데 이모라는 보살님이 계속 뭔가 종알대는 것이다. 자기 큰 딸이 (30대 중반) 남자가 없어 시집을 못가고 있다는 것이다. 몇 번 듣다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보살님! 날 똑바로 쳐다보세요. 뭐 딸이 남자가 없다고요? 없기는 뭐가 없어!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ㅇ살 먹고, ㅇ살 먹은 남정네가 둘이나 있는데 말 똑바로 하세요." 하며 호통을 치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며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전 가족이 잘 다녔다. (남양주)

◆ 아는 스님과 같이 신도님 집에 갔다. 보살님이 반갑게 맞아주길래 오늘은 보살님 아들을 보러 왔는데, 아들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2층에 있다면서 불러 내리려 했다. "내가 올라 갈테니 그냥 놔두세요." 하니 보살이 따라 올라오려 했다. 보살을 제지하며 아들을 만나서 근황을 묻고는 "오늘은 내가 일부러 널 만나러 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모월 모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라. 생명을 버리는 일을 절대하지 말라." 하자 따라온 스님이 달력에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게 했다. 그렇게 일러주고 내려오는 마음이 편치 않아 보살을 불러 어쩔 수 없이 내가 온 목적을 얘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님이 달력마다 표시하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옷 수선 차 그 이웃 신도님 집에 들렸는데, "스님! 며칠 전에 ㅇㅇ 가 음독자살을 하여 중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살이 발견했대요." 하는 것이다. 모른척하며 단숨에 그 집을 쫓아갔다. 그렇게 일러주었는데.....하며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참고로 그 집은 그 당시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20대 후반 청년이었다. (서울 홍제동)

◆ 보살 한 분이 새벽기도를 절에 와서 하고 난 후 집에 가서 잠시 누웠는데 꿈을 꿨다며 찾아와서 자랑을 하는 것이다. 꿈 내용은 친정아버지가 윤이 나는 실크로 된 두루마기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들녘을 바라보고 있는데, 머슴들이 추수하느라 바빴고, 한편에는 볏섬들이 수북이 쌓여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으니 "스님 좋은 꿈이잖아요."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싱글벙글하며 그렇다는 것이다."보살님!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심해서 잘 들어요. 이 시간부터 빠른 시간 안에 보살님 집안에 큰 사고가 일어나니 오늘 하루는 ㅇㅇ기도를 꼭 하세요." 했다. 보살은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갔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때 와서 하는 말이 새벽 1시에 큰 아들이 음주운전 하다가 다리 난간을 박차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들은 가벼운 외상정도이고, 차는 다부서져 폐차시켰다고 한다. 지금 그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양평)

◆ 지자체가 처음 시행되던 시기에 내가 있는 지역에도 선거운동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그날도 해가 저물 때 까지 운력을 하고 있었다. 안면이 있는 보살님이 낯선 보살님 4분과 같이 왔다. 웬일인가? 하고 물으니 차를 한잔하러 왔단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제일 연장자가 되는 보살님 한 분이 "스님!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묻길래 "아니 지금 누가 출마하는지? 아직 발표도 안되었고, 벽보도 붙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니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사주, 관상쟁이도 아니고, 설사 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얼굴을 봐야 하지 않은가? 사실 그때 이 소승은 그 지역에 간지가 3달 정도 밖에 안되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항이었고, 안면이 있는 보살도 법회 날 몇 번 왔다 갔을 정도였다. 그 당시에 절을 짓고 있었고, 임시 처소에 방 한 칸을 법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한참을 망설이다가 "자! 보세요. 보살님들 난 사주, 철학, 관상, 점, 부적 등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니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일제히 "예"라고 답했다. "그럼,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소문을 내지 않는다면 내 말하리다." 하고 여러 번 다짐을 받고는 "여기 내 손을 잘 보십시오." 하며 손가락 넷을 폈다. 전부가 실망하는 눈치였다. 그 지역은 항상 집권여당 쪽이었는데 내가 4번이라 표시하니 "스님! 4번이면 무소속 아닙니까?" 한다. "난, 당은 모르겠고, 4번입니다."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단단히 일러 보냈다. 결국 시간이 흘러 4번 무소속이 됐다. (양평)

작년 겨울에 규모가 있는 큰 절을 자꾸 맡아달라고 하길래 여기 스님과 같이 그 절을 방문했었다. 차를 한잔 하면서 본론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 절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본인은 거기서 30분 거리에 또 다른 큰 절을 지어놓았기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그렇게 하겠다. 현대불교신문에 글을 썼듯이 신도회를 없애고, 사주, 부적, 삼재풀이, 삼재기도, 방생, 성지순례, 인등, 입시기도 등 등.....을 비롯해서 하지 않겠다. 아마 신문에 쓴 것처럼 하지 않을 시 몇 천에서 몇 만 되는 신도들이 다 빠져 나갈 것인데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 바른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남는 불자가 단 10%가 아닌 1명만 남는다면 이 사찰은 성공한 사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잘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 했으나 지금껏 연락이 없다. 4년 전에도 큰 절에서 이런 제의가 있었고, 서울에 있었을 때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다 거절했다. 나의 요구가 관철되어 부처님의 정법이 드날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 나갈 것이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세상에서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정법을 선양치 않고 비불교적인 행위로 업을 삼는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의 문 앞에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